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 국토교통부 | | 보도 설명자료 | |
| | | 배포일시 | 2019. 11. 29(금) / 총 1매(본문1) |
| 담당 부서 | 간선도로과 | 담당자 | • 과장 이정기, 사무관 정경인 • ☎ (044) 201-3888, 3891 |
| |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| 담당자 | • 도로시설국장 이원돈, 도로공사과장 문선일 ☎ (042) 670-3500, 3550 |
| 보도 일시 | |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| |

국토교통부, 선제적인 조치로 방하목교 재시공 지시, 공사 관련자 엄중 조치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 등, 11.29.) >

◆ 홀로 빠죽 솟은 교각, 왜그런가 했더니 부실시공... 내년 2월 철거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방하목교가 잘못 시공됨을 발견하였으며, 잘못 시공한 시공사·감리사로 하여금 철거 및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였음.
 - 해당 시공회사는 화성산업(주), (주)화성개발이며 감리회사는 (주)삼보기술단으로서 철거 및 재시공의 비용은 해당 회사에 전액 부담시킬 예정임.

- 또한, 현재 진행중인 감사를 통해 잘못 시공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·징계를 요청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,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공개할 예정임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정경인 사무관(☎ 044-201-3891)
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(☎ 042-670-35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